

도산동 '테마형 특화거리'로 탈바꿈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첫 주자 '오감상생 도루메길...'사업 진행 '임방울 선생' 문화콘텐츠 구축 야간 경관·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광주 광산구 곳곳의 골목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독창적 매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핫플(인기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2년간 오감을 자극하는 테마형 특화 거리로 탈바꿈한 도산동 골목상권이 '첫 주자'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8억원을 들여 추진한 도산동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 올해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도산역부터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는 골목상권 일원을 대상으로 '오감 상생 도루메길 피어나다' 사업을 진행했다.

도산동 골목상권은 광산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에 속한다. 도산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폐업증가율이 광산구에서 가장 높은 56.4%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침체를 겪은 상권이기도 하다.

물론 도산동의 경우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광주지하철 1호선 도산역과 인접한 곳에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고, 1913송정역시장, 호남권 대표 관문인 광주송정역 등과도 가까워 유동인구 유입 측면에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이같은 도산동 상권의 강점에 주목하고 '랜드마크형 특화거리'라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골목경관 조성(불거리) ▲국창 임방울 문화콘텐츠(들머거리) ▲도루메길 스타상인 육성(맛불거리) ▲그린뉴딜 선도 밝은공기 골목길 조성(향기거리) ▲도루메길 골목상권 상생 공동체 구축(연결거리) 등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테마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대대적인 상권 인프라 정비다. 상권 초입부터 400m 구간 전선을 지중화하고, 이동 및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총 2개 구간 300m에 도산동 골목상권 캐릭터 '방울소리'를 반영한 전등갓, '스트리라이트' 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하늘조명 밤하늘 감성을 더하는 골목 환경을 조성했다. 낡고 오래된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고 밝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녁 시간 상권을 찾은 시민뿐 아니라 상인들도 '대만족'하고 있다.

임방울 생가터 등 국창 임방울 선생의 '뿌리'라는 도산동의 특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도 구축했다. 지난 9월 임방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도루메길 소리 페스티벌'이 핵심이다. 주민, 상인이 협력해 퓨전 국악과 주민이 참여한 노래자랑, 체험, 도루메길 스타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지역에 활기를 더한 상생형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

산 대표식당' 육성을 내건 골목상권 미식 브랜딩 아카데미가 두 차례, 콘텐츠 제작 및 SNS를 활용한 가게 제품 홍보 방법을 배우는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는 또 도산동 골목상권 이용과 걷기를 연계한 '골목상권 만세챌린지'를 운영하는 한편, 상권 브랜드화 및 상징 조형물 설치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봉투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광산구는 도산동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사례가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는 '머물고 싶은 골목길 조성 사업'의 방향성을 엿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도산동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광산구 골목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표 식당 육성, 특화된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맛과 멋, 흥이 넘치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머물고 싶은 골목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오감 상생 도루메길 피어나다'를 통해 테마형 특화거리로 탈바꿈한 광산구 도산동 골목상권.

'지구살림 나눔바자회' 개최 돌봄 이웃에 생활물품 지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일 아름다운가게 광주점 단점에서 '지구살림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광주점 단점과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중고물품 재사용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직원들을 비롯한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광주보훈요양원에서 기부한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 130여 점의 물품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겨울철 돌봄 이웃의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물품 기부에 참여해 준 분께 감사 드린다"며 "이런 행사가 자원 재활용과 나눔 실천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월곡2동·침단2동, 분리배출 우수동 선정

광주 광산구는 "월곡2동과 침단2동이 광주시 주관 분리배출 평가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에서 우수동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평가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 20개 동의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 단독주택가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관계 단체와의 협업, 수거보상제 실시, 시가지 청결성 등을 평가했다. 1위부터 5위까지 5개 우수동을 선발했으며, 광산구는 월곡2동(2위)과 침단2동(4위) 두 곳이 이름을 올렸다.

월곡2동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관계 단체와 환경 정화 활동, 시민 대상 홍보 등을 진행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식 CCTV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침단2동은 '재활용 동네마당(거점 배출 시설)

을 활용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등 자원순환 인식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관이 하나가 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쓴 덕분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은 물론 상가와 단독주택가 분리배출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 공론장...구직 지원·직장인 방학 등 정책 반영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일 광주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열린 '광산구 청년 일자리 공론장'에서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재미도 중요하고.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능력을 우선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2일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연 '광산구 청년 일자리 공론장'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청년이 직접 일자리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마련한 행사다.

공론장은 지역 일자리, 고용 현황 분석과 광산구 청년정책 소개, 백경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의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청년이 생각하는 '일'의 정의와 일자리 선택 기준,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열린 조별 토의가 진행됐다. 전문 협치, 토론 촉진자(퍼실리테이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으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들은 의식주 해결 등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나의 적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수평적

이고 민주적 조직 문화, 재미 등을 '좋은 일자리' 기본 조건으로 꼽았다.

여성 생존권과 인권, 장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인 '행과 잠미'에 빗대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 좋은 일자리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조도 있었다. 경제, 복지, 생활 지원 등 좋은 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발하고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직업 체험, 금융, 경제 등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른 교육',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직장인 방학' 도입, 일자리 안정을 위한 '근로유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청년정책 안내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입문기, 이행기, 이직, 전직기 등 구직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구직 주기별 통합 지원' 정책, 광산구 내 중소기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연계한 구직 지원 단계별 이행안 수립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전담 지원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시간 토의가 끝난 뒤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청년들이 토의 결과를 나누며 소통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자치구 6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광산구는 조직구성 및 관리, 아동 통합 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밝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205명의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도록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개 영역에서 33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수목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